

NEWSLETTER



2017년 12월 8일 금요일 발행 | 삼육대학교간호학과 편집 | 제42대간호학과학생회

Sahmyook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ontents

01 간호학과 소식 / 2면

- MVP캠프
- 스승의날 행사
- 아마나시 현립대학 국제협력교류방문
- 간호학과 학술제
- 체육대회
-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핀수여식
- MVP PLUS CAMP
- 삼육대 간호학과 2017학년도 입시변화
- 인도봉사대
- 해외인턴십
- 인턴십

02 학생활동 소식 / 6면

- 동아리 활동
- 학생회 활동
- 인성교육팀

03 특집 / 10면

04 대학원 소식 / 12면

05 동문회 소식 / 14면

06 학과사무실 / 14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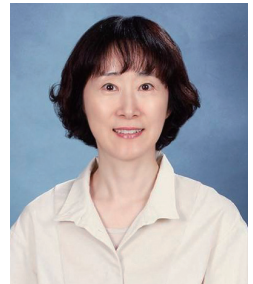
07 간호학과 발전기금 / 15면

08 월별 행사 / 16면

간호학과 동문님들! 그리고 재학생 여러분!

2017년 올해도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의 발전 소식을 담아 인사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삼육동교정에서 간호학과는 2017학번 새내기들의 설레임과 재학생들의 미래에 대한 꿈을 설계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찬 한 해였습니다. 1974년 간호학과 1회 입학생 20명을 시작으로 출발하여 올 해 44회 입학생을 맞이하면서 우리 학과는 현재 학부정원 65명, 일반대학원 석사와 박사과정, 보건복지대학원 중앙전문간호사과정과 노인전문간호사과정, RN-BSN 과정을 운영하는 단과대학 규모의 학과로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본 학과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시는 여러 선배 동문들과 교수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후원으로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룰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강경아 학과장

올해 우리대학교는 교육부로부터 '잘 가르치는 대학'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된 '대학자율역량강화지원사업(ACE+)'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4년간 매년 약 20억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에이스 플러스 사업을 통해 대학의 자율역량을 강화하고 잘 가르치는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SU MVP+교육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식 △소통 △창의적 사고 △자기주도 △글로벌 △나눔실천 등 전인역량을 갖춘 MVP+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만의 특성화교육 개발과 인성교육을 기반으로 한 명품 교육 시스템이 인정받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CK-II)에 재선정되어 우리 학과를 비롯한 5개 학과(간호학과, 약학과, 물리치료학과, 상담심리학과, 보건관리학과)가 연계전공(중독심리전공, 중독재활전공)으로 중독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쟁 사회의 인간성 소외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작용으로 각종 중독이 만연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중독전문가의 양성은 사회의 요구에 의한 소명이며 보건의료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학과는 '잘 가르치는 대학'의 간호교육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교육과정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진행될 것이며 재학생과 동문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간호 분야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의 견해를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인격과 품위를 갖춘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나갈 것이며, 창의적 간호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과 외 활동을 지원해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각 분야에 진출해 있는 동문들의 애정이 깃든 충고이며 학과발전을 위한 성원의 덕입니다.

졸업을 앞두고 학과발전에 대한 염원과 애정을 담은 예비동문들의 학과발전기금 약정의 전통이 세워진지 올해로 7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부를 통해 사랑을 받은 후배들이 사회에 나가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열심히 일하고 또 후배를 위해 작은 정성들을 모으는 사랑의 릴레이는 감동적인 전통으로 모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을 표현해주시고 학과발전기금을 보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01 간호학과 소식

1. MVP 캠프



지난 2017년 2월 13 ~ 16일, 20 ~ 23일 2차례 걸친 2017학년도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MVP 캠프가 진행되었다. 1, 2차로 나눠서 진행된 캠프에서 간호학과 17학번 학생들은 2차 캠프에 참석하였다. 인생학교 교장 손미나 강사님을 비롯하여 SNS 시인 글배우 강동혁 강사님, 삼육대학교 김성익 총장님 그리고 히즈빈스 대표의 임정택 강사님까지 자리를 빛내주셨다. 우리가 겪지 못한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으신 분들의 강연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으로써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 또 조별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간호학과는 물론 MVP 캠프에 참석한 다른 학과와도 친분을 쌓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날에 진행된 'MVP Party'는 화려했다. 삼육대학교 출신 스타이자 팬텀싱어 우승자 이버리 학우의 무대로 분위기는 한껏 달아올랐고, 다양한 밴드공연과 불꽃놀이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신입생들은 MVP 캠프를 통해서 입학 전 동기, 선배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였다. (1학년 손아람)

2. 스승의 날 행사

지난 5월 16일 다니엘관 304호에서 학생회의 주관으로 2017년 간호학과 스승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스승의 날 행사는 교수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다시금 전달해드리는 의미에서 진행되는 행사이다. 이를 위하여 학생회는 학생회와 인성교육팀 임원들이 밤낮으로 준비한 공연을 교수님들께 선보이고 선물을 드리는 순서를 마련하였다. 학생회와 인성교육팀에서는 연휴에도 학교에 나와 직접 구성한 동작으로 연습을 해가며 열과 성을 다한 수화 공연과 더불어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함을 더욱 잘 전달하기 위하여 개사를 한 곡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선보였다. '당신과 함께라면'이라는 곡과 '하루'라는 곡에 맞추어 완벽한 호흡을 보인 수화와 합창 무대는 교수님들과 학우들의 큰 박수와 응원으로 잘 마무리 되었다. 이와 더불어 카네이션과 액자 전달식 등의 뜻 깊은 순서가 이어졌다. 학생회와 인성교육팀 임원들은 몇 주간에 걸쳐 준비한 카네이션과 액자를 교수님들께 전달해드렸다. 아름다운 색의 카네이션을 교수님께 직접 달아드렸으며, 각 셀별로 교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표현한 사진을 담은 액자 또한 같이 전달해드렸다. 특히 액자는 우리 간호학과 모든 학우들의 도움을 얻어 제작하였는데, 각 셀과 담당 교수님만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재치 있는 사진과 문구가 담겨 있어 교수님들로부터의 큰 호응을 얻었다. 준비한 순서들을 차질 없이 모두 완벽하게 선보였으며, 교수님들과 간호학과 학우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2017년 스승의 날 행사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행사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교수님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간호학과 학우 모두와 되새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1학년 이수빈)



3. 야마나시 현립대학 국제협력 교류 방문

2017년 8월,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이 한국을 방문하여 8월 21일과 22일에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에서 삼육대 간호학과 학생들과 포럼과 다과회를 가졌다. 일본 야마나시 현립대학 간호학과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는 국제교류를 맺고 있어서 매년 학생들과 교수님들이 서로의 대학에 방문하는데, 올해는 야마나시 현립대학 국제협력 교류 방문단이 본교 간호학과에 방문하였다.

8월 21일에 한국에 도착한 야마나시 대학교 학생들은 먼저 삼육 캠퍼스 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방문하였고,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다. 또한 한국에 머무는 동안 본교 간호학과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한국의 가정생활을 몸소 체험하였다. 22일에는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실습실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을 방문하였고, 오후에는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에서 본교 간호학과 학생들과 포럼을 진행하

였다. 간호학과 학생회, 인성 교육팀, 페이퍼, 그린나래, 카디악 등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와 여러 동아리를 소개하고 연구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간호학과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소개하였다. 간단한 다과회를 가진 뒤 학교 후문에 있는 즉석 떡볶이집에 가서 함께 저녁식사도 하였다. 한국어와 일본어, 영어를 섞어가며 서로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이후에는 삼육서울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 방문하여 간호부, 재활치료실, 장례식장, 산후조리원, 노인간호 시설 등 다양한 병원의 현장을 견학하였고, 북촌한옥마을과 야간개장을 한 경복궁에도 갔다. 짧은 기간이지만 한국을 방문한 아마나시 현립대학 간호학과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또한 삼육대학교 학생들과 교수님들에게 특별한 시간과 경험이 되었을 것이다.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국제교류를 통해 각 학교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간호 전문가로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뤄지기 바라본다. (1학년 한상희)



4. 간호학과 학술제

2017년 9월 27일 요한관 흥명기홀에서 2017학년 간호학과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특별히 올해는 원자력의학원과 신학협약을 맺고, 교류해온지 10주년이 되는 해여서 강영순 부장님을 비롯한, 삼육대학교 교수님들의 강의로 구성되었다.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전 학년이 참가하였다. 1부에는 ‘기관소개 및 간호사의 역할’ 과 ‘임상간호실습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으며, 2부에는 ‘신규간호사의 핵심역량’ 과 ‘미래간호사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모든 강의 내용들은 곧 간호인이 될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3부에는 강연이 아닌 학회장선출과 상임대의원 선출이 이뤄졌다. 학년 구분 없이 이 날 학술제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의견을 투표를 통해 표명하여 학생회장 ‘김근별 학생’, 상임대의원은 ‘정현학생’이 선출되어 학술제가 마무리되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서 간호사로서 가치관을 확립하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일학년 김서현)

구성	주제
1부	기관소개 및 간호사의 역할 임상간호실습 전략
2부	신규간호사의 핵심역량 미래간호사 전략
3부	학회장선출 상임대의원 선출

5. 체육대회

지난 9월 28일 아직은 따뜻한 날씨 속에 걱정 반 설렘 반을 가지고 체육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과마다 연합팀을 꾸리지 않아도 출전이 가능했기에 독자적으로 출전을 하였다. 개회식을 위해 과마다 자신들의 특색 있는 입장을 하였는데 우리 학과는 귀여운 캐릭터가 간호학과를 들고 있는 팻말을 들고 입장하였다. 개회식이 끝나고 본격적인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이번 체육대회에서는 이벤트 식으로 특별한 경기들이 추가되었는데 남자피구와 여자 넷볼 경기 그리고 여자, 남자 개인전 종목이 추가되었다. 체육대회의 시작은 남자피구로 진행되었다. 간호학과 남학생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주어서 결승까지 갔지만 사회복지학과 남학생들과 결승전에서 붙어 패배하였다. 아쉽지만 2등도 값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계주달리기가 있었다. 첫 예선에서는 좋은 결과로 당당히 본선에 진출 하였지만 우리 학생들의 컨디션 난조로 상황이 힘들어졌다. 우리는 순위권에는 들지 못 했지만 결과에 운운하기보다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준 학생



들의 열정을 응원 해주었다. 그리고 축구 경기가 있었는데 이번 축구경기가 우리 학과에 특이나 의미 있었던 이유는 학과 특성상 남자 선수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다른 학과보다 힘들 수 밖에 없었던 축구였는데 3,4위전을 하게 되어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카디악 선수들을 응원했다. 3위를 걸고 하는 경기인 만큼 치열하고 열정적인 경기였고 다소 격해질 수 있었지만 선수들이 열심히 페어플레이를 해주었다. 그 결과 3위라는 대단한 결과를 얻게 되었다.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았기에 더욱 뿌듯한 결과이다.

우리 학교 체육대회만의 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치어리딩이다.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도시락을 먹고 잠시 소사회실 겸 앉아있으면 다른 학과에서 치어리딩 순회공연을 한다. 간호학과는 치어리더가 없기 때문에 더욱 더 그들의 모습이 멋있었고 노력에 감탄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발야구 결승 경기가 다가왔다. 이번 간호학과는 물리치료학과와 결승전 경기를 했다. 사실 작년에도 우승한 경력이

있어 신입생들이 부담감을 느꼈던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도 결승전까지 잘 따라와서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경기가 시작되었고 정말 여태까지에 선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에너지로 초반부터 고득점을 취하기 시작했고 결국 엄청난 점수 차로 콜드 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동안 열심히 연습한 결과로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고 이 기세를 타서 모든 학과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여자 개인전에서 간호학과 16학번 학생들이 나란히 1,2위를 하게 되어서 역시 간호학과 학생들의 열정을 보여줄 수 있었다. 모든 경기들이 끝나고 폐회식과 결과발표만을 앞두고 있었다. 축구 3위 발야구 1위라는 성적을 거뒀고 간호학과 학생들은 서로 고생했다며 다독였다. 이 체육대회를 준비하기 까지 열심히 뛰고 연습한 선수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체육대회가 마무리 되었다. 끝까지 남아준 학생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모두 함께 모여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끝나고는 잊지 않고 주변의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훌륭한 간호학과 학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2학년 변은총)

6. 나이팅게일 선서식 및 핀수여식



2017년 9월 27일 수요일 오전 11시, 삼육대학교교회에서 제 43회 나이팅게일 헌신회 및 핀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대상은 78명의 2학년 간호학과 학생들이었다. 사회는 신선화 교수님이 맡으셨으며 개식사, 찬미, 성경봉독 및 개회기도, 헌신사, 핀 수여, 나이팅게일 선서, 헌신가, 답가, 축가, 격려사, 마치는 기도, 폐회사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429장 '당신의 것이 옵니다' 를 통해 예수님을 찬미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영숙 보건복지대학장님께서 성경봉독 및 개회기도를 해주셨다. 이어서 강경아 학과장님의 헌신사가 있었고 간호학과 교수님들과 내빈들께서 핀 수여를 해주셨다. 모든 2학년 학생들은 순서에 맞춰 앞으로 나가 핀을 수여받았으며 교수님들께서 많은 덕담을 해주셨다. 또한 나이팅게일 선서를 통해 학생들은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고 희생과 봉사의 자세를 가진 간호사가 될 것을 다짐하고 맹세했다. 선서가 끝난 후 2학년 학생 일동은 '빛을 들고 세상으로' 라는 헌신가를 노래했으며 바로 이어 3학년 학생 일동이 '빛과 소금되어' 라는 답가를 부름으로써 간호학과 선배배간의 끈끈함을 보여주었다. 다음으로는 음악학과의 축가와 김성익 삼육대학 총장님의 격려사가 있었고 민상홍 목사님의 기도로 식이 마무리되었다. 이번 나이팅게일 헌신회 및 핀 수여식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마음가짐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1학년 김민주)

7. MVP PLUS CAMP

2017년 5월 12일에서 14일까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MVP PLUS CAMP' 가 진행되었다. MVP PLUS CAMP는 살렘관에서 2박 3일에 걸친 합숙 기간 동안 휴먼·음주 예방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하여 동기들과의 사이를 한 발짝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삼육대학교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다. (1학년 유호성)

섬김의 리더십이 빛난, 평생 잊지 못할 겸손 예식

대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가까이하고 싶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교수님들, 1학년 학생들과 함께하시는 수업이 없으신 교수님들도 계셔서 더욱 멀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렇기에 세족식은 잊을 수 없는 활동 중 하나였다. 교수님들께선 간호학과 학생들을 위해 살렘관 지하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기도를 해주시며 발을 씻겨주셨다. 학생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몸소 보여 학생들과의 거리감을 해소해주신 것이었다. 교수님들의 진심 어린 기도는 학생들에게도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되었다.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들은 눈을 감고 교수님과 손을 잡으며 함께 기도하고 학생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은 삼육대학교에서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부모님의 사랑에 젖어드는 시간, 편지쓰기

캠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은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이었다. 슬픈 노래가 나오면서 리더들은 학생들에게 초를 하나씩 나누어주었다. 모두들 숙연해질 즈음에 2명의 학생 부모님과 전화연결이 되어 편지를 직접 낭독해주셨다. 그 이후 리더분들이 미리 부모님들께 받았던 편지를 학생들에게 나눠주어 분위기에 집중하게 했다. 그리고 편지지를 나눠주며 부모님께 편지 쓰는 시간을 주었다. 한 명 한 명 감정에 흠뻑 젖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엄마가 딸에게' 라는 노래가 나오자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 생각에 빠져 눈물 젖은 편지를 쓰게 되었다. 대학생이 되어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부모님의 편지에 감동할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캠프에 참여했던 모든 학생들에게 단순히 휴먼·음주 예방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던 일석이조의 시간이었다.

8. 삼육대 간호학과 2017학년도 입시변화

올해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수시모집의 방식은 작년과 대부분 유사하나 몇몇 변화를 거쳤다. 학생부80%+서류20%였던 일반전형과 특성화고교전형이 학생부 100%로 변경되었다. 작년에는 성적50%+면접50%였던 학교생활우수자 전형이 성적70%+면접30%로 바뀌었으며, 면접이 없던 농어촌 전형에는 2차로 면접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생부 교과 반영방법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또는 과학 중 3개 과목을 선택하여 1학년 20%, 2,3학년 80%를 반영하는 방법에서 1, 2, 3학년 모두 100%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정시모집은 국어, 수학, 영어 중 2영역 40%, 과탐, 제2외국어 중 1영역 20% 반영에서 과탐, 제2외국어 말고도 한문이 추가되어 3과목 중 1영역 20%반영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다. 이 때 영어는 삼육대학교 기준으로 절대평가 등급 환산 점수로 들어가게 된다. 간호학과 정원은 수시45명, 정시20명이다. 그 외에도 정원 외 인원이 추가된다.

9. 인도봉사대

간호학과 인도봉사대인 삼육간호팀이 7월 9일부터 21일까지 인도 팔라카타지역에서 봉사를 하고 왔다. 정현철 지도교수님과 민삼홍 학과목사님의 지도로 3학년 7명, 2학년 6명, 1학년 2명으로 구성된 봉사대는 팔라카타지역에서 보건교육과 야외 레크레이션 활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였다. 그러나 마냥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만은 아니었다. 낯설고 먼 땅에 봉사활동을 하러 다녀온만큼 비행기 연착, 물품 분실, 여권 도난, 기차예약 오류 등의 다사다난한 일을 겪어야 했다. 또 현지의 더운 날씨 탓에 대원들의 절반 이상은 한 번씩 더위를 먹어야 했다. 하지만 대원들은 그런 상황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욱 열심을 내어 모든 봉사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돌아왔다. 대원들 모두에게 평생에 다시는 없을 추억이 되었을 것이다.



10. 해외인턴쉽

해외인턴십이 가지고 있는 희소성, 인턴십이 어떤 건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회 흔치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흔치 않은 기회를 잡아 색다른 경험을 통해 새롭고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총기가 소유 가능하고 마약 중독자들이 많은 나라 미국, 그리고 그런 마약중독자들을 위한 중독센터인 THS, 인턴십 첫날, 걱정과 설렘이 있었지만 그보다 총기와 마약에 대한 공포감도 더욱 컸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고정관념에 너무 사로잡혀 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턴생의 신분으로서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지는 못 했지만, 거의 모든 상담사와 간호사들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프로그램일지라도 상담사에 따라서 환자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이 달랐고, 이러한 차이가 가지고 오는 효과와 환자들의 반응을 유심히 관찰하고 이를 토대로 환자와 상담사 또는 간호사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피드백을 갖는 것이 인턴십 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미국은 환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신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식을 지향하였습니다. 치료진은 직접적으로 교육과 활동을 통해 해결방안은 제시하기보다는 스스로 '왜 중독에 빠지게 되었을까?' '왜 못 끊을까?'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를 고민하고 공동체 내에서 서로 토의할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 토의 방법을 제시할 뿐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기에 아쉬움도 컸지만, 그렇기에 더욱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에만 얽매이지 말고 시야를 넓혀 중독 그리고 해외의 중독까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임훈)

11. 인턴십

서울 아산병원 인턴십을 수료하신 4학년 남연주선배님과 삼성병원 인턴십을 수료하신 조한솔 선배님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배님이 인턴십에 지원하신 동기와, 뽑히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 인턴십기간 동안 하는 일,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았다.

조한솔 선배님

1. 인턴십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삼성병원이 어떤지 궁금했고 인턴십을 함으로써 나중에 입사지원서를 쓸 때 쓸 말이 많아 질것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2. 인턴십에 뽑히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학점 3.3이상이라는 지원요건이 있는데 그 학점이상만 맞으면 뽑힐 수 있었던 것 같아요.

3.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월요일에는 오티를 가서 병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병원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화수목에는 실습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 부서에서 실습해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수료식을 하고 끝나요.

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긴 기간도 아니고 5일이나까 그 병원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 인턴십을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인턴십 했던게 면접준비할 때랑 실제 면접에서도 플러스 요인 이었던 것 같아요.

남연주 선배님

1. 인턴십을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서울 아산병원은 학교 선배님들도 많이 근무하고 계시고 또한 3학년 학생간호사 때에만 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되어서 지원했어요. 물론 인턴십 수료자는 채용 시 2차면접이 제외 된다는 장점도 또 다른 하나의 이유이기도 해요.

2. 인턴십에 뽑히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학점이 3.5이상이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해요. 뽑히기 위한 별다른 준비는 없었지만 토익점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3. 인턴십 기간 동안에는 어떤 일을 하나요?

5일 동안 인턴십을 하게 됩니다. 월요일은 오티를 듣고 화요일부터 자신이 원하는 부서와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병동을 배정받게 되고 그곳에서 1:1로 프리셉터 선생님에게 실무와 관련된 것들을 실습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강당에 다같이 모여 약물계산법, IV술기를 파트너에게 서로 해보기도 해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는 간호팀별로 간담회를 해요. 간호팀장님, 간호교육팀 선생님, 그리고 여러 인턴십 학생들이 함께 간호사례를 두고 토론을 해요.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기도 해요. 이후 금요일에 수료식을 하고 마쳐요.

4.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3학년 학생 간호사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기회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고 꿈꾸는 병원이라면 인턴십에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해요. 짧은 기간이지만 특히 아산병원은 인턴십 수료자에게 2차면접전형 제외라는 특권이 있기 때문에 좋은 것 같아요.

02 학생활동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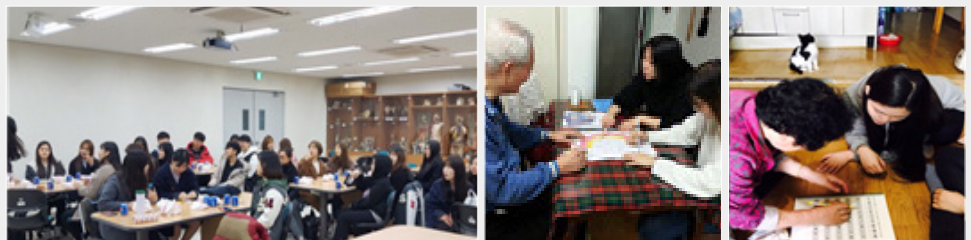
1. 동아리 활동

그린나래

그린나래는 '그린 듯 아름다운 날개' 라는 뜻으로 간호사의 상징인 백의의 천사에서 그 이미지를 형상화해 이름을 지은 봉사동아리이다. 2013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 벌써 5년이 되었다. 1학기에는 3학년 선배가 회장을 하고 2학년이 부회장을 맡으며, 2학기에는 2학년이 회장을 맡고 1학년을 부회장으로 키워서 부회장이 회장을 역임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그린나래는 대학의 사회봉사단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전공 연계 봉사동아리이다. 즉 전원이 간호학과 학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호학과 관련된 봉사를 하는 것이다.

1학기에는 노원구보건소의 치매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치매노인 인지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친구들끼리 2인 1조로 직접 치매 어르신 가정에 방문하여 인지재활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이다. 1주일에 1회씩 10주에 걸쳐서 진행된다. 2학기에는 공릉종합사회복지관의 구립공릉지역아동센터 독서돌봄마을학교와 연계하여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5대 안전교육(성폭력 및 아동학대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에 대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2017년 현재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개인적으로 쉽게 접할 기회가 없는 '단체봉사위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알고, 주위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 외에도 개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더 늘릴 계획이다. (2학년 정주현)



FC CARDIAC

FC CARDIAC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와 사설 축구동아리로 재학 중인 학생들의 주로 친목과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신입생부터 고학년 선배들까지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하고 즐겁게 운동을 한다.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학교생활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알려주기도 한다. 동아리의 이름인 CARDIAC은 '심장의'라는 사전적 뜻을 가지고 있다. 이에 걸맞게 운동은 심장이 계속 뛰듯이 우리의 축구에 대한 열정도 계속해서 뛰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 아닐까? FC CARDIAC은 2012년부터 공식동아리가 되어 본격적으로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 결과로 2011년 제1회 전국 간호 대학생 축구대회 3위, 2012년 제2회 전국 간호 대학생 축구대회 준우승 등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3년에는 삼육대학교에서 제 3회 전국 간호 대학생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는데 이 대회에서도 8강까지 올라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교내 체육대회에서는 처음으로 남자 축구 3위를 수상하는 저력을 보여주었다. 대외활동 이외에도 학교 내 체육대회나 다른 학과와의 주기적인 경기를 통해서 다른 학과 학생들과의 친목도 다진다. 이렇게 FC CARDIAC은 간호학과 학생들이 뭉쳐 좋은 활동들을 보여주면서 남학우들이 학과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나아가 FC CARDIAC은 여러 활동들로 더욱 번창하고 발전하고 있다. (1학년 박성훈)



PAPER

PAPER는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유일무이한 학술동아리이다. 간호학도로서의 자질과 능력개발을 통해 간호학 및 관심 학문 분야의 전문가, 리더 배출을 목적으로 2012년에 창설되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논문을 작성하여 각종 학회에 참여하는 학구적인 활동부터 선배들과의 교류를 위한 멘토링, 자신감 있는 표현을 위한 발표 활동까지 매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부서에는 크게 PD부, 대외협력부, 기획부가 있다. PD부는 PPT 제작을 통한 발표 활동과 모의 면접까지 진행하여 자신감과 발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대외협력부는 여러 간호 분야에 게시는 선배님들과의 멘토링을 준비하고 방학 때마다 충청도의 지역 아동센터에서 진행되는 지식 멘토링 봉사활동을 기획한다. 마지막으로 기획부는 동아리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선후배간의 끊임없는 교류를 위해 소풍과 엔티를 기획한다. 전공과목을 배운 뒤 간호학과 관련 있는 논문을 작성하여 학회에 참여하는 활동을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간호학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2학년 이윤아)



페이퍼 '대학생 재능나눔 봉사' 그리고 봉사정신!



대학생 재능기부 봉사단 한국장학재단에서 주최하여 학업 능력과 인성을 갖춘 대학생들이 방학 중 또는 학기 중에 전국의 초·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지도, 학습 동기부여, 진로상담, 돌봄 등 멘토링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간호학과 동아리 페이퍼를 통해서 대학생 재능봉사 멘토링을 다녀왔다. 방학이 시작되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2~3시간을 달려서 삼성에 위치한 삼성아동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재능봉사 캠프를 통해서 우리는 선택아이들에게 '어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교육' 과 '장래희망 생각해보고 발표하기', '미술활동', '퀴즈 맞추기', '물총놀이' 등 여러 활동을 통해서 지역적으로 소외된 아이들에게 방학시간동안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추억을 쌓는 시간 함께 하였다. 같이 동행한 2학년 친구들은 작년에도

다녀와서 이미 구면인 아이들도 있었다. 나도 또한 아이들이 친근감 있고 먼저 다가와서 장난도 하는 모습에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두 가지를 소개해보고 싶다. 첫 번째로, 장래희망과 발표하기 인데, 아직은 너무 이르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정의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한다. 추상적으로 자신의 꿈을 생각하는 것과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발표를 통해서 각인시키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고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찾는 것에 미약하지만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다른 한 가지는 바로 물총게임이다. 우리가 활동한 날은 여름이라 더운 시기였는데, 아이들이 그렇고 대학생 들고 정말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할 수 있었다. 아마도 아이들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즐거웠던 시간이 무엇이라고 물어본다면 모두가 '물총게임' 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렇게 짧은 1주간의 시간이었지만 아이들과 친해지기에 충분했고, 많이 즐거웠던 기억들과 추억을 선물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언젠가 이런 단기간의 시간동안 아이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겠냐는 주변의 의견이 있었다. 과연 그저 이벤트성의 효과에 미치지 않을까 고민을 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떤 일이 사소한 이벤트성의 일이라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전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했던 재능봉사가 과연 아이들에게 치부의 것들이라고 해도, 그러한 치부의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아이들의 성장과정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확신한다. 하지만 여기에 병용 되어야 하는 것은 멘토나 봉사자로 참여하는 대학생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방학 기간동안 이러한 활동들이 대학생의 경력과 친구와 추억 쌓기용으로 전락해버리고 그것이 우선시 된다면 이런 프로그램의 본질적인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고 봉사를 받는 자들에 대한 모욕 때문이다. 앞으로 나는 이런 봉사과 같은 기회가 있기 힘들겠지만, 앞으로 1,2 학년의 친구들은 대학생활 동안 봉사나 이런 프로그램 기회가 많이 있을 것이다. 후배들에게 나는 개인적으로 정말 자신들의 경력과 추억 쌓는 목적이 먼저가 아닌 봉사의 목적이 먼저 되는 시간으로 이러한 봉사나 프로그램에 참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각설하고, 정말로 이번 여름방학을 삼성지역 아이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을 마련해준 페이퍼와 그리고 같이 가서 정말 고생해준 이윤아, 박지영, 이영현, 유주현, 이수빈, 조예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2. 학생회 활동

간호학과 학생회는 재무부, 학술부, 홍보부, 체육부, 행사부 총 5개의 부서로 나누어져 있다. 스승의 날, 체육대회, 학술제, 핀 수여식, 수시면접도우미, 신입생 MVP캠프 일정 중 학과모임, 학위수여식 등 다양한 행사를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준비한다. 먼저 재무부는 모든 행사에 필요한 재정을 관리 감독한다. 그리고 분기별로 1년에 4차례 학생회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한다. 학술부는 매년 발행하는 뉴스레터, 격년으로 발행하는 학술지, 그리고 학술제를 담당한다. 학술제는 천보축전 기간에 취업특강과 학술회로 나누어져 진행된다. 홍보부는 신입생 환영회, 스승의 날 행사, 국가고시 응원, 수시와 편입생 면접 등 각종 학과 행사의 진행을 담당한다. 체육부는 체육대회에 출전선수를 선발하고 규칙을 교육하며 경기연습을 통해 1학기부터 진행되는 각종 종목의 예선전, 2학기 본선 출전을 준비한다. 마지막으로 행사부는 간호학과의 큰 행사 중 하나인 핀 수여식 행사 전체를 담당한다. 핀 수여식은 나이트게일 선서를 하고 교수님들께 핀을 수여받는 행사이다. 학생들은 이 행사를 통해 간호사로서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다짐하고 사명감을 되새기는 시간을 갖는다. 이와 같이 간호학과 학생회는 다양한 분야에서 간호학과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2학년 김근별)



부서	간호학과 학생회 부서별 담당 활동
재무부	모든 행사에 필요한 재정관리 감독, 분기별 학생회비 사용내역 공개
학술부	뉴스레터, 학술지, 학술제 담당
홍보부	각종 학과 행사의 진행
체육부	체육대회 출전선수 선발, 규칙 교육 및 경기연습
행사부	핀 수여식 행사 전체 담당

3. 인성교육팀

인성교육이 올해부터 주중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되었다. 매주 셀 모임이 있어 교수님과 멘토링 모임을 갖고 때로는 인성교육팀이 준비한 특별한 순서나 목사님과 외부 강사님이 오셔서 특강을 받았다.

작년까지만 해도 인성교육시간이 시작되기 전 안내팀은 밝은 미소로 학생들을 맞이하였다. 동시에 음악팀은 앞에서 노래를 부르며 울동을 하고 싱어송 시간이 끝나면 순서팀의 싸인과 함께 셀이나 인성교육팀이 준비한 순서를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대강당에서 열린 채플도 들었다. 이번에 111주년 기념 CCM 대회에서 간호학과가 1등으로 우승하면서 아름다운 합창으로 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아서 간호학과의 위상을 높이기도 했다. 위 대회에서 받은 상금 111만원은 간호학과의 이름으로 기부하여 나이트게일의 봉사정신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채플외에 학회와 협력하여 스승의 날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방학때는 인성교육팀 멤버들이 한 마음을 모아 지역으로 봉사활동을 갔다. 이번 여름에는 여주와 완도로 나누어 봉사대를 갔다. 여주는 여주지역아동센터에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오전에는 위생교육, 꿈찾기, 재능교육, 성교육을 진행했다. 그리고 오후에는 그에 맞게 활동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 완도 봉사대에서는 오전에는 지역 주민들을 찾아가 전도지를 나누어주었고 오후에는 아동센터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다. 앞으로는 해외봉사도 계획중이다.

인성교육팀은 이렇게 다양한 일을 기획하고,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의 다리가 되기 위해 매주 한 시간 이상 모여 회의를 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한다.



03 특집

1. 명찰의무화

‘명찰 의무화’는 금년 5월부터 시행된 법안이다. ‘명찰 의무화’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명찰에 의료인 종류별 명칭, 간호조무사의 명칭, 의료가사의 종류별 명칭 등과 이름을 각각 표시하는 것이다. 다만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명찰 의무화’가 개정되어 시행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강남 성형외과에서 유령의사들에게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속출하였고, 치과에서도 치과의사가 아닌 자들이 치과의사인척 진료를 하거나 직원들에게 위임진료를 하게 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였기 때문이다.

‘명찰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이 존재한다. 개인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측에서는 일단 반대하는 입장이다. 왜냐하면 간호사들이 보통 큰 병원을 선호하고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것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개인병원에서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야하는 입장인데 간호조무사임을 명찰에 밝히면 환자들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의 입장에서 의료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경향을 띄었다. 이미 법안이 시행된 이상 규제가 하나 더 늘었다고 생각하기보다 간단한 명찰 착용으로 신뢰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자기 맡은 바에 충실히 임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1학년 제영빈)

2. 제9회우수간호과학자상수상

삼육대 간호학과 오복자 교수님이 지난 2016년 12월 16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강당에서 열린 한국간호과학회 정기총회에서 제9회 우수간호과학자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상은 한국간호과학회가 우수한 학문 연구 성과로 간호과학 발전에 공헌한 간호과학자를 발굴, 포상하여 국내 간호과학 연구 활동의 사기진작과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 입니다. 오복자 교수님께서서는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 연구기금수혜실적 및 학회봉사실적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오복자 교수님께서서는 1985년 삼육대 교수로 임용된 이후 현재까지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제1저자로 100여 편 이상의 논문을 게재했고, 1997년에도 과학기술우수논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중앙간호학회에서 10년간 회장 및 임원으로 봉사했다.

또한, 간호학과 오복자 교수님께서서는 2017년 6월 22일 한국간호과학회 주최로 신촌세브란스 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2017 한국간호과학회 논문작성세미나’에 참석 전국 간호대학을 대표해 효과적인 논문 작성법 즉, “PRISMA for Systematical Review & Meta Analysis”를 주제로 체계적 고찰과 메타분석의 보고지침에 대해 발표 하셨습니다.



3. ICN 제3부회장 선출



대한간호협회 국제특별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시는 신성례 간호학과 교수님께서서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26차 국제간호협의회(ICN, International Council of Nurses) 총회'에서 제3부회장에 선출되었습니다.

신성례 교수님의 이번 선출은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던 김모임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동양인으로서 최초로 ICN 회장에 선출된 것과 김순자 간호협회 간호사업자문위원과 김의숙 전 대한간호협회장이 각각 이사에 선출된데 이어 네 번째라고 합니다.

신성례 교수님은 대한간호협회 이사와 국제특별위원장, 한국간호과학회 이사, 성인간호학회 이사, 대한간호협회 홍보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2015년에는 서울 세계간호사대회 조직위원회 집행부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4.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1기 수료



지난 7월 11일부터 진행되었던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원에서 주최한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 1기>가 지난 8월 24일 수료식을 끝으로 마무리를 되었다. 본 과정은 전국 13개 간호대학의 총 39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어 매주 화, 수, 목 동안 국제진료현장에 꼭 필요한 외국인 환자 응대 커뮤니케이션 기법, 외국인환자 의료사고 이해, 외국인환자 컨시어지 업무 프로세스 이해, 국제진료분야의 전망과 비전, 제의료보험 제도 및 수가, 국제진료센터 마케팅 기법 등뿐만 아니라 외국인환자와의 의료서비스시 필요한 국제진료 현장 외국어회화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특히 외국어회화 습득뿐만 아니라 참여 학생들이 각 8개의 조를 나눠 국제진료센터가 있는 병원을 선택 하였고 그룹별로 발표를 통해 현장에 있는 실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마지막 날에는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국제진료센터”를 방문하여 현장에 대한 이해도 상승 및 역량 강화를 할 수 있었다. 지난번 추천된 교육생 중 “이선영, 정주리, 박종배, 이가은” 학생이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수료를 했다. 특히, 39명중 4명의 우수학생 시상에서 박종배 학생이 시상을 했다.

04 대학원 소식

논문계획서 및 공개발표

2017년 1학기과 2학기에 2회에 걸쳐 논문계획서 발표 및 논문 공개발표가 있었다.

1학기 5월 17일 논문계획서 발표자는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고미순(박사5학기, 건설업 보건관리자 직무분석), 일반대학원 석사학위 과정 김수연, 두남희, 홍해경 등 총 4명이었고, 논문 공개발표는 임상간호대학원 조은희(노인전문간호학 전공) 1명이었다.

2학기 11월 15일 논문공개 발표자는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과정 염계정, 석사학위 과정 권기연, 김수연, 두남희, 박순희, 홍해경 등 총 6명 이었다.

학위취득자 명단 및 학위논문 제목

2017년 가을학기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자는 임상간호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와 노인전문간호학전공 조은희와 중앙전문간호학전공 박선희, 김수현, 김화진, 박현희, 이영애, 장은수, 홍용은, 김진희, 임수연, 강세희, 김해인 등 총 12명이다.

201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1명, 석사학위 취득예정자 5명으로 총 6명이다.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염계정,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권기연, 김수연, 두남희, 박순희, 홍해경 이다.

성명	학위	논문제목	졸업일
조은희	석사	일 공공의료기관에 입원한 노숙자의 영양상태와 주질환 유형 비교-기관노숙자와 거리노숙자	2017. 8월
염계정	박사	임신 전 건강행위 측정도구 개발	2018. 2월
권기연	석사	간호사의 간호일터영성, 자기효능감이 환자안전관리활동에 미치는 영향	2018. 2월
김수연	석사	일 병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과 일반병동 입원환자의 서비스기대도, 만족도 및 고객충성도 비교 연구	2018. 2월
두남희	석사	재가치매노인 배우자의 부양부담감 영향요인	2018. 2월
박순희	석사	암생존자의 외상후 성장과 건강증진 행위: 영적 안녕의 매개효과	2018. 2월
홍해경	석사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한 정보제공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효과	2018. 2월

05 동문회 소식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총동문회는 2015년 10월에 제 7대 동문회장(문혜숙)과 부회장 5명, 임원단을 선출하여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동문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2014년에는 개교 40주년을 맞아 동문들의 연락처를 파악하는 사업과 더불어 온라인 커뮤니티인 '삼육간호밴드'를 조직했고, 2016년 3월 15일에는 정기 산학협력기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선배간의 유대관계를 돈독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은미 동문

전은미 (미국이름: Eunmee Shim, 83학번) 동문이 현재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AdventistHealth-Care 병원의 Ambulatory Networks and Chief Strategy Officer로 재직 중인데 2017년 10월 말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삼육서울병원에서 “간호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한 간호실무자의 역할” 주제로 직원 대상 특강 및 간호학과 교수님들과 함께 저녁식사 모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더욱 많은 후배간호사들이 리더로써 성장하길 바라면서 ‘간호사가 갖추어야 할 3가지 지능’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첫 번째는 지적지능으로 임상간호사로서 갖춰야할 지적능력을 갖추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역량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지능으로 대상자 및 동료간호사, 동료 의료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배려함으로써 협조할 수 있는 정서적 역량을 갖추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지능으로 경력이 늘어감에 따라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 및 직원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넓힐 뿐 아니라 시야를 넓혀 리더로써의 역량을 갖춰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미국 북부지회 소속 병원(Adventist hospitals in north American division)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e-mail : eshim@AdventistHealthCare.com)



이정아 동문, 서울시 보건교사 임용고시 합격

간호학과 이정아 동문(99학번)이 서울시 보건교사에 임용되어 현재 강북구 인수중학교에서 근무중이다. 이 동문은 졸업 후 삼성병원, 의사협회 등 여러 곳에서 간호사로서 경력을 쌓다가 기간제 교사를 하며 교직문화에 매력을 느끼고 임용고시에 도전해 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보건교사가 됐다. 이 동문은 “학교생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바쁘고 응급상황에 대한 책임감으로 부담도 되지만 학생들과 교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류혜진 동문,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

간호학과 류혜진 동문(10학번)이 간호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구리시 보건소에서 근무중이다. 류 동문은 졸업 후 아산병원 내과병동에서 1년간 근무를 한 후 잠시 휴식을 갖은 후 원래 목표였던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여 간호직 공무원이 되었다. 수험 1년 차에는 컷라인으로 필기 합격하였지만 면접에서 탈락하였고, 2년 차때 3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합격까지 하게 되었다. 류 동문은 “실습 때는 알지 못했던 행정 업무나 실무들로 임상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지만 학창시절부터 바라왔던 길이기에 감사한 마음으로 배워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동문회장님 인사말

존경하는 동문 선배 여러분,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



저는 간호학과 7회 졸업생 동문회장 문혜숙입니다.

올해도 벌써 입동을 지나 녹음은 노랗고 빨간 옷을 갈아입고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맘 흘려 봄에 뿌린 씨앗이 기쁨으로 추수단을 거두듯이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하고 일한 사람은 노후에도 자신의 인생을 의미있게 사는 것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열매를 바라는 것은 불로소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남을 돌아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8월에 12일 동안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우회를 주축으로 아프리카 대륙에서 400키로 떨어진 마다가스카르에서 고아들 400여명과 빈민촌을 대상으로 의료 봉사과 평생에 처음해보는 학생들을 데리고 운동회를 열어주었습니다. 한 겨울에도 신발이 없어 맨발로 축구를 하는 아이들, 비취볼과 풍선을 처음 본 아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봉사를 하러간 대원들은 오히려 작은 것에 행복을 느끼는 것을 보고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더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문여러분! 올해도 한 달 반 정도를 남은 이때에 연초에 계획한 모든 것들을 다시 재정리하여 세월을 아껴서 더욱 의미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기원하며 학교의 무궁한 발전이 있길 기도합니다.

2017년 11월 9일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총동문회장 문혜숙

06 학과 사무실

삼육대학교 제3과학관 201호에 위치한 간호학과 사무실은 간호학과 학부/RN-BSN과정/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석사, 박사과정/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중양, 노인)과정의 전반적인 행정 및 운영보조를 담당하고 있다. 매 학기 각 과정의 수업과 실습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의 진행을 돕고 있으며, 대학생활 그리고 졸업을 위해 여러 가지 도움과 정보를 제공한다. 현재 간호학과 사무실에는 학부 및 간호학과 전반적인 행정을 담당하는 조교와 RN-BSN과 대학원 업무를 담당하는 조교가 근무하고 있다.

학과사무실 정보



● 운영시간

〈학기중〉 월-목 09:00~17:30 / 금 09:00~15:00

〈방학중〉 월-목 09:00~17:00 / 금 09:00~15:00

● 연락처 02-3399-1593 ● FAX 02-3399-1594

● 연락처 nursing@syu.ac.kr

07 발전기금

삼육대학교 간호학과의 발전을 위한
재학생 및 졸업생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 간호학과 발전기금 동판 제작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기부자 명단을 새겨넣을 예정입니다. 올해 기부자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부자

YANYI 강경아 강나경 강민주 강수련 강한규 강한별 고유진 고은아 권승환 권윤현 권은지 권정현 김가현 김겨레 김경하 김남훈 김덕현 김명지
김미진 김민경 김민규 김민지 김민진 김부덕 김선애 김수연 김순희 김슬기 김슬지 김시애 김영민 김은정 김자은 김재환 김재희 김정혜 김주연
김지연 김지현 김진현 김찬중 김태빈 김하영 김한솔 김현영 김현용 김혜연 김혜인 김혜진 남 이 맹정호 문미나 문혜숙 민영춘 박민영 박민우
박선숙 박선영 박세현 박소영 박소은 박슬기 박애령 박유진 박은주 박종민 박진희 박초롱 배가희 서주영 서현진 신선화 안문영 안수영 안정은
안지은 안현진 연영란 영경훈 오명인 오복자 오원우 우진희 원미슬 원준금 원혜리 유채완 윤단비 윤민지 윤성훈 윤지현 이가현 이기환 이다정
이미숙 이성희 이소라 이수빈 이슬기 이예은 이윤주 이윤희 이자영 이하련 이현정 이환희 임영숙 임현숙 장영순 전수정 전영남 전예지 전지영
전현경 정가희 정동민 정미정 정현철 조소현 조은빈 자은이 조혜수 조혜정 조화영 지수정 채영미 총배령 최교야 최다예 최도희 최범진 최성의
최유진 최정심 최형지 한경림 한상현 한숙정 한지수 한지은 함석영 홍수지 황은지

삼육대학교 간호학과 발전기금은 간호학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국제학술 교류 활동 및 교육시설개선에 투자하기 위한 기금입니다.
발전기금을 위한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전액 세제상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는 방문납부, 무통장 입금, 자동이체 등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출현 방법

- 방문납부 학교를 내방하여 기금을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및 자동이체 (간호학과 발전기금 통장)
우리은행 1005-001-901381(예금주: 삼육대학교)
우리은행 1005-002-145007(예금주: 삼육대학교)
문의처) 02-3399-1593(간호학과), 02-3399-1004(대외협력처)
- 기타 후배사랑, 학과사랑 밀알장학기금은 학교홈페이지(<http://www.syu.ac.kr>)에서 온라인약정서를 작성하신 후 팩스(간호학과: 02-3399-1594 혹은 대외협력처: 02-3399-3806)로 송부해주 시면 됩니다.

08 월별 행사

● 3월

입학식

2017학년도 새내기 간호학과 학생들이 오는 날로, 3월 2일에 진행되었다.

올해 들어온 1학년은 총 74명이며 여학생 59명, 남학생 15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 5월

스승의 날

5월 16일 스승의 날은 항상 학생들을 위하여 열심히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께 감사하는 날이다. 학생회와 인성교육팀이 준비한 수화과 합창, 1학년 전 학생이 참여한 영상, 사진을 교수님들께 전하였다.



MVP PLUS CAMP

Mvp plus 캠프는 삼육대학교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으로 5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로 진행되었다. 캠프 기간 동안에는 교수님들과의 세족식, 부모님께 편지쓰는 시간 등을 가지며 동기, 그리고 학과와 결속력을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 8월

아마나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3박 4일 동안 일본 아마나시 현립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우리 삼육대학교 간호학과로 방문하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아마나시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학과의 동아리에 대해 소개하고 저녁을 함께 먹으며 상호간에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 9월

나이팅게일 선서식

9월 27일 진행된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우리 삼육대학 간호학과 학생들이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정신을 이어받아 미래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책임과 긍지를 다하겠다는 선서를 하는 중요한 연례행사 중 하나인 핀 수여식 날이다. 2,3학년 학생들이 함께 열심히 준비한 노래를 부르고 교수님들께서 학생 한명 한명에게 핀을 달아주시는 간호학과에서 중요한 행사이다. 이번 나이팅게일 선서식에 참여한 2학년은 총 78명이다.



간호학과 학술제

9월 27일에 간호학과 학술제가 진행되었다. 학술제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고명숙 교수님과 원자력병원에서 오신 강영순 간호부장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특강으로 진행된다. 그리고 강의가 끝난 후에는 학회장과 상임대위원 선거가 이루어졌다.

추계 체육대회

9월 28일, 매 년마다 전 학과가 참여하는 학교행사인 체육대회가 진행되었다. 간호학과는 피구는 안타깝게도 결승에 진출하지는 못했지만 발아구는 결승전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다. 그리고 축구에서도 3위를 기록했다. 비록 종합순위에는 들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고생한 학생들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 날 응원하러 온 학생들을 위해 학생회는 도시락과 음료를 준비하였으며 체육대회가 끝난 후에도 자리를 깨끗이 정리하며 체육대회를 잘 마무리했다.

● 10월

수시면접

2018학년도 신입생 면접을 보는 날이다. 이 날에는 학과 학생들이 면접도우미 역할을 한다. 면접보시는 교수님들을 위한 다과와 음료를 준비하고 고사장 준비와 안내, 수험생들의 전자기기 소지 검사 등을 진행한다. 간호학과 수시면접은 2017년 10월 22일에 진행되었다.

● 12월

아마나시 현립대학 방문

오복자 교수님, 정현철 교수님과 간호학과 8명의 학생들이 12월 17일부터 12월 22일까지 5박 6일간 아마나시 현립대학에 방문하여 연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 1월

국가고시

1월에는 4년 동안 열심히 간호사를 준비한 4학년 선배님들이 국가고시를 치르게 된다.

이 날 학생회에서는 선배님들이 고사장에 무사히 도착해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간식 및 핫팩 등을 준비하여 응원을 한다. 2018년도 국가고시는 1월 26일에 시행될 것으로 예정되어있다.

● 2월

졸업식

4년 동안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선배들이 졸업하는 날이다. 졸업식은 2018년도 2월 9일로 예정되어 있다.

신입생 Orientation

신입생들이 입학하기 전 참가하는 MVP캠프에서 처음 참여하는 학과 오리엔테이션이다. 이 날은 신입생들이 처음으로 학과선배들, 교수님들과 만나 학과 소개와 동아리 소개 등 간호학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받는 날이다.